

비상경제장관회의
22-3

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

2022. 9. 8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창업·벤처생태계 현황 및 진단	2
III. 그간의 정책평가 및 당면과제	3
IV. 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	6
V. 세부 추진과제	7
1. 민간역량 및 부처협업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...	7
2.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	11
3. 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	14
4. K-Startup 대표 브랜드 확립·확산	17
VI. 향후 추진일정	19

I 추진배경

- 코로나 이후 시·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,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
 -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7개사*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·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글로벌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
 - *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(구글), 아마존, 메타(페이스북), 엔비디아, 텐센트('21년말 기준)
 - 주요 선진국도 이러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 정책을 추진 중
 - * [사례]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(Next40, 프랑스), 해외투자 글로벌 거점도시 선정(일본),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(GRT 프로그램 싱가포르), 해외 투자자 VISA 발급 요건 완화(이탈리아) 등
-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증가*하고 있으나 유니콘 기업의 83%가 내수 중심의 디지털·플랫폼 기업이 차지**
 - * 유니콘 기업 수(누적/시점말) : ('18) 13개 / 6개 → ('22.상) 32개 / 23개
 - ** '22.상반기 유니콘 기업 23개사 중 여기어때, 쏘카, 직방, 아이지에이웍스 등 18개사
 - 이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*과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불구하고, 소상공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**의 주체로 대두
 - * 기업당 일자리 창출('20.6~'21.6) : 유니콘 265명 > 벤처투자기업 10.5명 > 벤처기업 1.9명
 - ** 예시 : e-commerce 분야 플랫폼간 경쟁 골목상권 침해 및 배달수수료 스타트업·전문직역간 갈등 등
 - 디지털 전환, 플랫폼 발전 등으로 국경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가운데, 제한된 내수시장*에서 도태될 우려**도 상존
 - * 시장규모('24년 전망) : (인공지능 분야) 세계 약 460조원 / 국내 약 7천억원, (실감형콘텐츠 (AR/VR)) 세계 약 246조원 / 국내 약 2조원 등(출처: 美 시장조사업체 IDC / 한국IR협의회)
 - ** 유니콥스(Unicorn+Corpse) :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한 채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파산하는 경우

◇ 벤처·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

⇒ 우리 혁신 벤처·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, 그 기반이 되는 창업·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

II 창업·벤처생태계 현황 및 진단

< 국내 창업·벤처 생태계는 지속 성장 중 >

- 혁신 창업가의 끊임없는 도전과 정부의 노력*으로 창업생태계 양적·질적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, 대·내외적인 위상도 상승

* 정부 창업지원 예산규모(억원, 용자제외) : ('18) 7,796 → ('20) 14,517 → ('22) 16,243

- 신설법인·벤처투자 등 창업·벤처 생태계 외형의 확대*와 함께, 유니콘 기업 증가 등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**

* 신설법인(개) : ('20) 123,305 → ('21) 126,905 / 신규 벤처투자(억원) : ('20) 43,045 → ('21) 76,802

** 유니콘 기업(개) : ('20) 13 → ('21) 18 → ('22.상) 23

美 전자제품박람회(CES) 혁신상 수상기업(개) : ('19) 5 → ('20) 24 → ('21) 20 → ('22) 74

- 세계 속 국내 창업·벤처 생태계의 위상도 지속 상승하고, 기업가정신 등 창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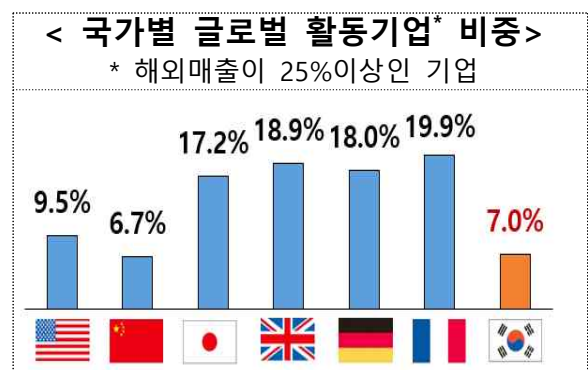
* 서울시 창업생태계 순위(Startup Genome) : (~'19) 30위 밖 → ('20) 20 → ('21) 16 → ('22) 10

** 전 세계 50개국 중 한국 기업가정신 순위(GEM) : ('19) 10 → ('20) 9 → ('21)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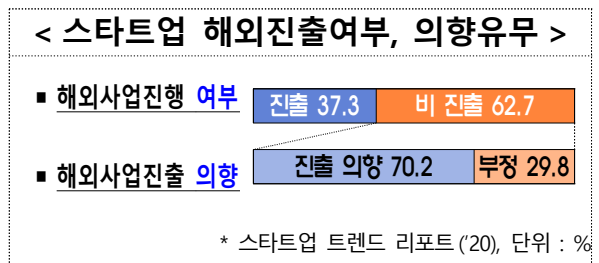
< 다만, 글로벌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 >

- 벤처·스타트업이 진입장벽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, 글로벌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글로벌 부문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

* 창업선진국 부문별 창업생태계 비교
(아산나눔재단, '21년)



- 벤처·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의지는 높으나 자금, 판로, 네트워크, 인력 등으로 해외진출을 주저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



* 창업기업은 해외진출 시 자금확보(67%), 유통망/판로(58.4%), 네트워크(46.5%), 인력확보(41.6%) 등에서 어려움 호소(한국엔젤투자협회 TIPS기업 설문조사, '22.5)

- 전체 창업기업 기준으로 해외진출*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비중은 1.4% 수준**으로 '21년 실태조사 결과 약 2.7만여개사(창업진흥원, '22.2)

* 수출, 해외 사업장 설립, 현지기업 인수합병,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

** 업력 기준으로는 설립 5년차 기업이,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음

- 국내 외국인 창업자는 전체 등록 외국인의 0.01% 수준으로 절대적 규모가 적고*, 언어장벽, 네트워킹 등에 어려움 호소

* 기술창업(D-8-4) 체류자격 등록외국인(명) : ('19) 74→('20) 72 →('21) 98→('22.6월) 112명

** 외국인 창업기업 애로사항 : (1위)언어장벽, (2위)자금확보, (3위)세금, (4위)팀빌딩, (5위)비자 (글로벌 스타트업 리포트, '21)

III 그간의 정책 평가 및 당면과제

- 정부는 벤처·스타트업의 해외 사업 확장과 글로벌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

- 벤처·스타트업에 해외전시회 참가, 현지 액셀러레이팅·네트워킹, 해외 대기업과 밋업·실증, 해외거점 운영 등 지원

* [중기부] 해외진출 자금, 공간, 보육, 전시회 참가, 대기업 연계 실증 테스트 등, [문체부·환경부·해수부] 해외진출 자금, [과기부]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역량 강화

-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글로벌 벤처 캐피탈(VC)자금 유입에도 노력

* [해외인재 유치] 외국인 창업비자 및 창업 종합지원 시스템(OASIS) 운영, 해외 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스타트업 경진대회 운영(K-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, '16~, 매년 60개사) 등

** [글로벌 VC자금 유입] 모태펀드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 조건 글로벌 VC 운용 펀드에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 조성('13~'21년간 총 39개 펀드(4.9조원 규모) 조성)

- 그러나, 그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·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 환경에 대해 다양한 진입장벽·애로사항을 호소

① 공공기관 및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·단편적 지원 정책

- 중앙부처·지자체 지원정책이 분절적·단편적으로 운영되고,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을 연결하는 협업체제도 부재
- 성장단계별, 진출유형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에서도 벤처·스타트업들은 부족함을 호소

현장 의견

-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지만, 대부분 일회성 지원으로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의 시간·자원 등에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음
- 자사는 B2B 기업인데 지원사업은 B2C 등 다양한 형태와 단계의 기업을 포괄하여 모집하다 보니,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소비

⇒ 글로벌기업, 해외VC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, 분야별 유망 기업 발굴·전문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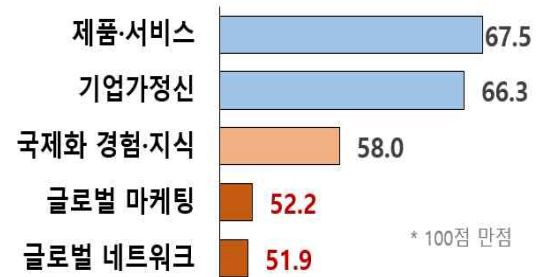
② 글로벌 네트워킹 기반 및 역량 부족

-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법인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소요되며, 계약 성사를 위한 레퍼런스·인지도도 부족

- 벤처·스타트업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수준을 51점(100점 만점)으로 평가하며, 해외진출 결정요인 중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*

* 글로벌 창업 성공요인 현재수준 조사 (창업진흥원, '22.7월)

<글로벌 창업 성공요인별 현재수준>



- 언어 소통, 문서작업 등 현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고, 국가별로 다른 회계·법령 적응에도 애로

현장
의견

- 스타트업으로 해외 기업을 만나기 쉽지 않으며, TV, 신문 등 언론 홍보 또는 정부 기관 차원의 소개·연결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
- 시장조사를 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, 파트너 탐색 등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나, 고객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 해외시장에 자금을 투자하기 어려움

- 주요 선진국은 La French Tech Hub(22개), Enterprise SG(36개), German Accelerator(6개) 등을 재외공관·거점에 설치하고
 - 자국 스타트업의 현지 연결, 현지 창업생태계(VC, 대기업 등)와의 교류 등 네트워킹 여건 마련

⇒ 네트워킹 기반으로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인지도·위상을 높이고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매칭 활성화, 현지적응 지원 필요

③ 국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미흡 및 국내 정착에 한계

- 창업·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인바운드 정책은 그간 다소 소외된 측면
 - 외국인 창업자 유치사업은 일회성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으며, 국내체류 창업인재의 정착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연계가 미흡
 - * 창업경진대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정착·성장에 한계
 - 국내 벤처투자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족한 측면*이 있어, 해외 VC의 원활한 국내 벤처·스타트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
 - * 벤처펀드 지배구조, 신규 투자방식 도입 등의 근거 미비

현장
의견

- 정부 지원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해외 창업자도 다수, 국내 투자자,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이 필요
- 해외창업자가 한국에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민간기업 협업, 한국 커뮤니티에 편입될 수 있는 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필요

⇒ 외국인·유학생의 국내 창업 및 정착·성장까지 지원하고, 해외 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필요

IV K-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

비전

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·벤처 생태계 구현

목표

① 2027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* 10개 육성

* 해외매출비중 25% 이상 유니콘 기업

② 2027년까지 해외진출 K-Startup 5만개 달성

* 해외진출 창업기업(만개): ('21) 2.7 → ('23) 3.3 → ('25) 4.0 → ('27) 5.0

4대 전략	추진과제
① 민간역량 활용 및 부처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	① 9개 글로벌 기업과 270개 K-Startup 협업 ② 국내 대기업 활용 해외진출 지원 2배 확대 ③ 글로벌 컨설팅사 활용, 유니콘 해외진출전략 수립 ④ 해외VC 대상 K-Startup 글로벌 IR 강화 ⑤ 범부처 협업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
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	① K-Startup 행사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 확대 ② 재외공관 활용 K-Startup 해외 네트워크 구축 ③ 민간 해외거점 활용 'K-스타트업 센터' 확충 ④ 유럽권 벤처·스타트업 해외투자 거점 설치
③ 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	① 외국의 혁신창업 인재 유치 및 성장 촉진 ② 우수 유학생의 K-Startup 창업 유인 ③ 실리콘밸리 수준의 벤처투자 제도 개선 ④ 글로벌 펀드 활용 해외자본 국내 유치
④ K-Startup 대표 브랜드 확립·확산	① 대한민국 K-Startup 대표브랜드 확립 ② 한-미 스타트업 행사에서 브랜드 로고 발표 및 확산

전략1 민간 역량 활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

◇ 민·관 및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유망 K-Startup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



1) 9개 글로벌 기업과 270개 K-Startup 협업

□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('22 200개 300억원 → '23 270개 정부안 405억원)

○ '23년부터 기존 6개사 외에 AWS(아마존), 오라클, 에어버스 등을 추가하여 인공지능·헬스케어, 우주·항공 등 딥테크 분야 K-Startup 지원 강화

* ('22) 구글, MS, 엔비디아, 다쏘시스템, 앤시스, 지멘스 6개사
→ ('23(안)) 기존 기업 + AWS, 오라클, 에어버스 총 9개사

< '23년 신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(안) >

협업 기업	아마존 웹서비스 	오라클 
분야	클라우드 기반 AI·헬스케어	클라우드 활용 인공지능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WS 클라우드 이용 크레딧 ■ 클라우드 기술 교육, 조직문화·비즈니스 관련 세미나 및 AWS 전문가 오피스아워 지원 ■ AWS 연계 국내외 VC와 협업하여 데모데이 운영, 아마존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기회 제공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■ 클라우드 기술 교육/멘토링, 비즈니스 관련 세미나 지원 ■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세계 오라클 파트너사 대상 홍보 지원
중기부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(공통)		

< '21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0개사 지원성과 >

- (고용) 총 2,913명 고용(평균 14.6명), 전년(1,466명) 대비 98.7% 증가
- (투자) 69개사(34.5%)가 1,901억원 투자유치(평균 27.6억원) 성공
- (매출) 총 3,508억원 매출 달성(평균 17.5억원), 전년(1,797억원)대비 95.2% 증가





2) 국내 대기업 활용 K-Startup 해외진출 지원 2배 확대

-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K-Startup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2배 규모로 확대 추진

* (현재) CJ, 네이버클라우드, SK이노베이션, KB금융, KT 등 5개 대기업 / 70개 스타트업
→ (확대) 10개 대기업 / 140개 스타트업

-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공략 아이템 기획부터 개발·사업화, 해외 진출까지 대기업과 공동으로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
- 정부는 협업 대기업을 '22년 5개에서 10개까지 지속 발굴하고, 대기업과 공동선정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(최대 3억원)을 지원

< '22년 국내 대기업 협업 해외진출 지원현황 >

협업기업	분야	해외진출 지원내용	공통
   	식품·물류·미디어 배터리·리사이클 등 클라우드 핀테크·프롭테크 등 5G 응용(IoT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제 전시·컨퍼런스 참가, 해외사업장 네트워크 밋업 ■ 글로벌 벤처투자자 네트워크(AVPN) 세미나 공동참가 ■ 동남아시아 수출상담회, 지사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등재 ■ 자사 해외법인 및 협력기관을 활용한 해외진출 멘토링 ■ MWC, GITEX 등 ICT 분야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	사업화 자금 (최대 3억원) (중기부)

- 신한은행* 등 해외 사무소를 운영중인 국내 금융기업과 핀테크분야 K-스타트업을 공동발굴하고, 금융·투자 컨설팅, 웨비나 등 지원

* 글로벌 진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·현지화를 위한 MOU 체결
(신한은행-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'22.6월)

-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협력모델 추가 개발 및 확산

< 국내 금융기업 협업 K-Startup Networking 계획(안) >

- (대상) 핀테크 관련 해외 진출 희망 벤처·스타트업
- (운영방법) 참여기업 풀 공유, 웨비나로 운영
- (구성) 해당국 핀테크 생태계 소개 → 기진출 K-핀테크 기업 사례 공유 → 해당국 핀테크 주요 규제 현황 → 싱가포르 핀테크 지원 정책

3) 글로벌 컨설팅사 활용, 유니콘 해외진출 전략 수립

□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하려는 성장기 스타트업을 위한 ‘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’ 추진(’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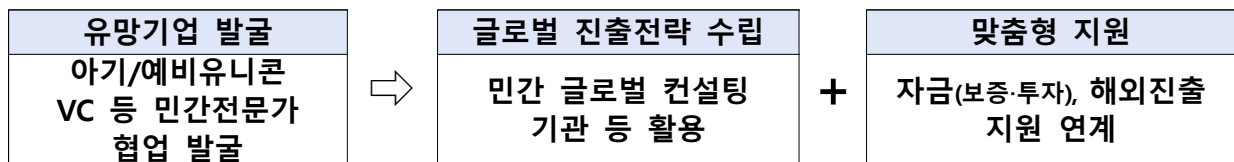
- K-유니콘 프로젝트*를 통해 발굴한 아기·예비유니콘 등 유망 벤처·스타트업 중 글로벌 지향 기업에 글로벌화 전략 수립 지원

* K-유니콘 프로젝트 : (1단계 : 아기유니콘)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대상, 시장개척자금 3억원 → (2단계 : 예비유니콘)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대상, 최대 200억원 특별보증

** '19~22.상반기 발굴 기업 수 : 아기유니콘 160개사, 예비유니콘 96개사

- 이와 함께, K-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금(특별보증) 및 해외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

< ‘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’ 주요내용(안) >



4) 해외VC 대상 K-Startup 글로벌 IR 강화

□ 글로벌 VC 대상, ‘K-Startup IR’을 개최, 국내 벤처·스타트업 및 VC에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마련

- IR영상을 제작, 비대면 방식으로 국·내외 VC에 국내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‘비대면 온라인 IR’을 운영하여 접근성 제고(’23 20개사)
- 참여기업의 영문 IR 자료를 해외 VC에 사전 공유하고, 해외 VC 선정 관심기업과 1:1 프라이빗 IR 주선

□ 해외 벤처투자 전문가, 해외투자 유치 선배 기업인을 통해 현지 투자 생태계 노하우를 전수하는 IR 멘토링 운영

5) 범부처 협업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

- 각 부처가 분야별·산업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, 중기부가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협업방식 도입('23 정부안 140개사, 99억원)

* ('22년) 분야별 구분 없이 중기부가 단독으로 초기 단계의 해외진출기업 선정, 현지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 → ('23년) 부처협업으로 해외진출 지원효과 제고

- 분야별 해외진출 전략 및 해외 파트너사 공유, 진출기업 간 노하우 전수 등으로 수요기반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추진

< 범부처 협업 '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' 추진체계(안) >

기업 배정	계획 수립	해외 진출	
부처별 참여의지 및 기업수요 기반 분야별 기업수 배정	분야별 해외진출 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·선정	현지 액셀러레이팅	오픈이노베이션, 바이어 매칭, 해외진출 컨설팅 등
중기부	각 부처	중기부	각 부처 연계 지원(예시)

- 관광·콘텐츠·ICT 등 부처별 소관 분야 벤처·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개선('22년 183.5억원, 133개사)

< '23년 분야별 벤처·스타트업 해외진출 주요 사업 개선방향(안) >

- ▶ (관광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, '22년 61.5억원 3개사) 해외거점을 추가개소하여 현지 지원체계 및 기반을 강화
- ▶ (콘텐츠분야 론치패드, '22년 14억원 30개사) 오픈 이노베이션 등 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'22년 성과 기반 운영권역 조정
- ▶ (ICT분야 해외진출 지원사업 '22년 61억원 100개사) 과기정통분야 혁신기술사업 연계(디지털전환, 차세대 통신 등) 글로벌 시장 안착 및 스케일업에 중점

- 각 부처가 보유한 스타트업 해외진출DB를 통합하여 분야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성과분석을 강화하고 후속지원 연계

- 외국인직접투자(산업부), 수출신고내역(관세청) 등을 '창업사업통합 관리시스템'에 통합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

*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해 국세청, 고용부로부터 국내 경영실적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성과를 관리중(창업지원법 제62조)

전략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

◇ 스타트업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, 재외공관, 대기업 등 민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벤처·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확보

1) K-Startup 행사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 확대

- 빅테크 기업, 대형 VC 등이 참여하는 K-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미국에서 개최하여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네트워킹 촉진('22.9)
 - K-스타트업을 공동지원할 글로벌 기업을 추가 발굴*하고, 미 VC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
 - * 창구 프로그램(구글), 제로원(현대차) 등 대기업-스타트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우수 K-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대-스타 협력부스 조성
 - 액셀러레이팅, 벤처투자, 마케팅 관련 미 전문가가 K-스타트업에 미국 시장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노하우 공유
 - 한-미 대기업, VC·AC가 공동 선정한 유망 K-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, VC, 미 유니콘 기업 등과 매칭하여 미국시장 진출 지원
-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'컴업'의 혁신적인 행사 기획·운영을 위해 민간 주도형으로 개편* → 세계 5대**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(~'27)
 - * [1단계, '22년] 운영체계 개편(민간 주관기관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선정,'22.3) → [2단계, ~'26년] 자생력 확보 → [3단계, '27년] 민간 이양
 - ** VIVA Technology, SLUSH, TC Disrupt, Web Summit + COMEUP
 -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자문단(50여명)*의 네트워크를 활용,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력·교류 강화 등 행사규모와 브랜드 확장
 - * 소카, 삼성전자, 카카오벤처스 등 창업가, 글로벌기업, 투자기관 등 창업생태계 전문가
 - 창업생태계를 리딩하는 저명인사 컨퍼런스와 신제품·서비스 쇼케이스, IR·투자유치·기술협력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

2) 재외공관 활용 K-Startup 네트워크 구축

- 매년 초 공관의 신청 및 스타트업 수요, 보유 네트워크 등에 따라 K-Startup 네트워킹 지원 공관 선정(‘23 시범)

< 벤처·스타트업 지원공관 선정계획(안) >

참여공관 공모	협업 제안	공관 선정	K-스타트업 네트워킹
중기부-재외공관 협업 K-스타트업 네트워킹 신청 요청 중기부→외교부	K-스타트업 네트워크, 수요, 활동내용 제안 공관→중기부	K-스타트업 네트워킹 활동 심의 및 선정 중기부	공관장 중심 K-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재외공관

- ①현지 이벤트 연계 네트워킹 행사 개최, ②공관 협의회 연계 현지 스타트업 정보 수집·교류, ③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수집·교류 등 수행
 - 현지 VC 대상 데모데이, 해당국 스타트업 전시회 계기 ‘K-Startup Night’ 등 공관 신청에 따라 벤처·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
 - 재외공관이 해당국 진출 스타트업 리스트를 제공하면 중기부가 현지 스타트업 네트워크에 배포 가능한 K-Startup IR북 제작 추진

유사
사례

프랑스 라 프렌치 테크 허브 : 주요국에 재외공관 주도로 스타트업, 대기업 ACVC 등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하는 ‘라 프렌치 테크 허브’ 22개 조성



3) 민간 해외거점 활용 K-스타트업 센터 확충

- 국내 대기업 등 민간 해외거점을 ‘K-스타트업 센터’로 지정하고, 민·관이 함께 해외진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네트워킹 진행
- 롯데벤처스*가 베트남(하노이)에서 운영 중인 “L-Camp Vietnam” 내 KSC 베트남 센터(165 m² 내외) 신규 설치 추진(‘23)

* 민·관이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, 정부는 해외진출자금 및 현지 액셀러레이팅, 민간은 현지 계열사 오픈 이노베이션, 펀드 심사역과 IR 등 네트워킹 제공

< K-스타트업 센터 현황 ('22년), 7개국 7개소 >

유형	거점형				프로그램형*		
국가	미국	싱가포르	스웨덴	프랑스	이스라엘	인도	핀란드
특화 업종	D.N.A, 디지털헬스	핀테크, 스마트시티	AI, 친환경	문화콘텐츠, 이커머스	의료바이오, 정보·보안	에듀테크, 에그테크	게임·AR·VR, 에너지

* 프로그램형: 물리적인 거점(공간) 없이, 현지 액셀러레이팅(사무공간, 컨설팅, 사업화자금, 투자유치 등) 프로그램 중심의 센터

- 세무·회계 표준 컨설팅, 브로셔·피치덱 현지화 등 현지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강화하여 원활한 현지 적응 및 네트워킹 촉진

4) 유럽권 벤처·스타트업 해외투자 거점 신규 설치

-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유럽시장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'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'를 신규 설치*('23)

* 조성현황 : 미국 실리콘밸리('13.8), 중국 상해('14.6), 싱가포르('15.9)

- 벤처투자 지표 및 벤처·창업기업 해외진출 수요*를 고려하여 유럽 내 신규 해외 투자유치 거점 조성지역 검토

* 틱스기업 진출 희망국가 : 미국(83%), 유럽(66%), 동남아(33%) 順(창업진흥원, '22.5월)

- 유럽권 정부 모태펀드(FoFs) 운용기관*과 공동출자 및 협력 강화

* EIF, Bpi France, British Patient capital, KfW Capital, TESI 등

- 기결성된 유럽권 글로벌펀드* 관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신규 VC를 발굴하고, 현지 VC 대상 IR 등 추진('23~)

* Partech('19), Northzone('19) Eurazeo('22), Korelya('22 예정), Cathay Innovation('22 예정)

< 사례 :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(싱가포르) 주요활동 >

- **(국가간 협력)**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공동펀드 조성('20년, 720억원), Penjana Kapital (말레이시아 재정부 산하 Fund of funds)과 공동펀드 조성 추진 중, ACCMSME (동남아 국가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)와 협력사업 수행
- **(신규VC 발굴)** '21년 Vertex 등 6개, '22년 AC Ventures 및 Gobi Partners 등 2개 펀드에 출자하여 우수 VC 네트워크 확대

전략3 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

◇ 외국인·유학생·해외VC의 국내 창업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고, 국내 정착, 성장을 위해 비자제도 활성화 및 투자제도 개선 추진

1) 해외 인재의 국내 혁신창업과 성장 촉진

-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·취업비자 취득·갱신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창업자 DB 구축·활용
 - 외국인 창업자의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해 기술창업 비자(D-8-4)* 연장이 용이하도록 지원**
 - * 자본금이 없어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(Startup visa)로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
 - ** 연장 신청 시 출입국관리 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대 2년씩 연장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로 연장 → 부처 추천서 등으로 2년 연장 지원
 - 국내 스타트업의 원활한 해외인재 채용을 위해 전문직 특정활동비자(E-7-1)에 대한 부처 추천 제도* 활성화 추진(관련 고시 제정 및 홍보, '23)
 - * 연 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(1인당 GNI의 1.5~3배)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 추천서 소지시 직종 유관 학력 및 경력(5년 이상) 요건 면제
 - 외국인 창업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외국인 창업자DB(사업자번호·체류비자, 법무부)와 창업사업관리시스템(재무지표)* 연계
 - *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매출, 피보험자수, 사업화 모델 등 DB 보유
- 외국인 전용 창업경진대회 'K-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*'를 통해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 창업자 지속 발굴('23 정부안 60개사)
 - * 주요내용 : 사전 액셀러레이팅 → 데모데이 피칭 → 우수팀 시상·상금(1등 12만불)
- 우수기업 대상 상금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취득·법인설립, 액셀러레이팅, 네트워킹, 국내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 후속지원 강화('23~)
- 해외에서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창업 지원사업을 안내할 '(가칭)K-Scouter' 시범 운영('23~)
 - * K-스카우터(Scouter) : 해외기업 발굴 및 성장 관리 전문가로, 영국정부의 해외 스타트업 유치 사업인 GEP 사업(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) 벤치마킹

- 신산업분야 규제특례, 실증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외국인 기업을 '글로벌 혁신특구*'로 유치

* 글로벌 혁신특구 :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로 현재 추진 검토중

2) 우수 유학생의 K-Startup 창업 유인

- 국내 대학(원)에서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*들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

* 유학생 현황(만명, KEDI) : ('15) 9.1 → ('17) 12.4 → ('19) 16.0 → ('21) 15.2

- 기술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 발굴 및 국내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'도전! K-스타트업' 학생리그(예선리그) 내 유학생 트랙 신설*('23)

* 현행 학생리그(교육부 주관)의 본선진출 T/O(38팀)를 유학생 수요를 감안해 확대

- 지역거점대학과 'OASIS 프로그램*'을 연계하여 국내창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비자 취득을 종합지원

* OASIS 프로그램: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 및 창업활동 종합지원 프로그램

3) 실리콘밸리 수준의 벤처투자 제도 개선

- 해외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('23,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)

-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'업무집행전문회사(SPC)' 설립을 허용하여 펀드 운용과 관리 구분

< 美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>

※ 기존 창투자·LLC형 VC(관리회사, 모회사) : 출자자 모집, 펀드 관리 업무 수행

※ 펀드운용 자회사 : 펀드 설립·출자, 운용사(GP)로서 투자기업 발굴, 기업평가 등 실질적 펀드 운용

※ (유사사례)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신탁형·조합형·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 존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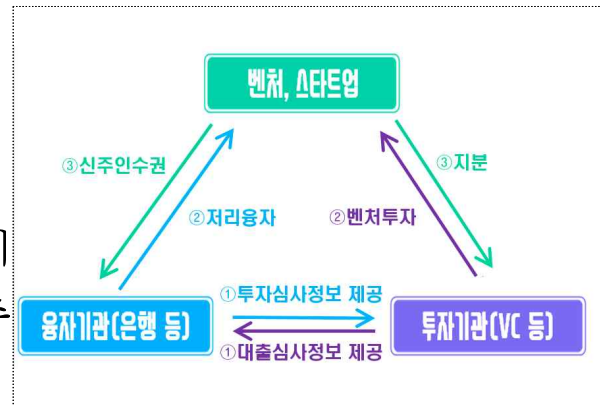
□ 해외 VC가 위험도-수익률에 따라 벤처·스타트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'조건부 지분전환 계약' 도입('22.하,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)

-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상법상 사채,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로 계약을 이행하는 형태*로 초기투자 활성화 기대

* 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)에 비해 中위험-中수익 추구 투자방식

-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(Venture Debt) 도입 ('22.하,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)

- 벤처투자 받은 법인에 융자기관이 저리로 융자하고, 소액의 신주 인수권(warrant) 획득



4) 글로벌 펀드 활용 해외자본 국내 유치

□ 벤처·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 추진('21 : 4.9조원)

* 글로벌 펀드 : 해외VC가 운용하되, 국내 모태펀드와 외국자본이 공동출자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

- 그간 의무투자대상 완화* 등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4.9조원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벤처·스타트업에 약 8천억원 투자('21년말 기준)**

* (기존) 국내기업 → (개선) 국내-해외기업 조인트벤처,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등 추가('21)

** (펀드 조성) 39개 펀드, 4.9조원 → (국내 벤처·스타트업 투자) 384개사, 8,242억원

□ 국내VC가 투자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'국내 VC의 해외IR' 추진 ('23~)

- 글로벌 메이저 펀드 참여 유도·출자지역 다변화를 위해 국내 VC와 해외 VC 간 네트워크 강화

* VC밋업(가칭)을 통해 국내외 VC간 투자 우수사례 및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, 국부펀드 운용사와 국내 우수기업 및 VC와 미팅 추진

전략4 K-Startup 브랜드 확립 및 확산

- ◇ 대한민국 벤처·스타트업 대표브랜드를 확립하여 한-미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계기로 발표하고, 컴업 등 국제행사를 통해 확산

1) K-Startup 대표브랜드 확립

- 「라 프렌치 테크」(프랑스), 「Startup SG」(싱가포르)와 같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벤처·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확립
- 해외 스타트업 행사뿐만 아니라, 재외공관, 해외 스타트업 거점 등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마련

< 벤처·스타트업 브랜드 국내·외 사례 >

해외		 La French Tech	 STARTUP SG	 Startup Singapore
		 J-Startup		 Startup India
한국		주프랑스대사관 'K-Startups Night'		주뉴욕총영사관 'K-스타트업 피치 컴퍼티션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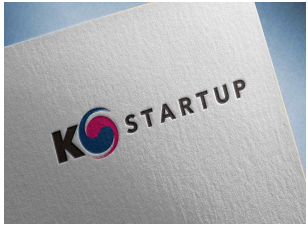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태극 문양을 활용한 로고를 대표브랜드로 선정*

한국 스타트업 대표브랜드



* 국가 상징 등을 활용한 시안 마련(~'22.8월) → 대표브랜드 후보안 선정을 위한 1차 조사(팁스기업 대상, 241명) → 'K-Startup 창업지원포탈'에서 2차 조사(652명, 40.5% 득표)

- 대표브랜드 디자인 표준 및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유관기관 및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('22.4분기)

디자인 활용(안)		활용지침(안)
		<p>① 중앙정부, 지자체, 등록 공공기관 : 별도의 절차 없이 매뉴얼에 따라 활용</p> <p>② 그 외 기관·기업 : 요건을 갖춘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</p>

2) K-Startup 브랜드 로고 발표 및 확산

- 미국 K-스타트업 행사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 브랜드를 국제무대에 발표,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인지도 제고
 -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에게 'K^{STARTUP}'을 제시하고, 한국 스타트업의 우수성 홍보
 - '22년 4분기 국내·외 스타트업 이벤트에 'K^{STARTUP}'를 적극 활용, 대한민국 벤처·스타트업 대표브랜드로서 자리매김 유도
 - 국내외 창업생태계 간 소통·교류의 장인 'کم업'에서 국내 벤처·스타트업 대표브랜드 'K^{STARTUP}' 홍보관을 운영('22.11월)
 - SWITCH('22.10), SLUSH('22.11) 등 주요 해외 스타트업 행사에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K-스타트업 홍보
- * (예) 대표브랜드 활용 K-Startup 홍보 브로셔 제작, 참여기업 부스에 브랜드 로고 제시, 대표브랜드 깃발 게시 등을 통해 대표브랜드를 부각

< 국가별 대표브랜드 활용사례 >



- 공신력 있는 해외 언론사(美 월스트리트저널, 佛 르 피가로 등), 스타트업 전문매체와 협업하여 대표브랜드 홍보 ('22.9~)
 - 해외 매체와 'K^{STARTUP}', 한국의 유망 벤처·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, 외신기자 대상 설명회 개최

VI 향후 추진일정

연번	추진과제	일정	소관부처
1. 민간역량 활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			
(1) 9개 글로벌 기업과 270개 K-Startup 협업			
①	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딥테크 분야 확대 지원	'23.~	중기부
(2) 국내 대기업 활용 K-Startup 해외진출 지원 2배 확대			
①	대기업 협업으로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규모 확대	장기	중기부
②	국내 금융그룹과 K-스타트업 공동발굴 및 지원	'22.下~	중기부
(3) 글로벌 컨설팅사 활용, 유니콘 해외진출 전략 수립			
①	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	'23.~	중기부
(4) 해외 VC 대상 K-Startup 글로벌 IR 강화			
①	해외 투자자 협업 'K-Startup IR' 개최	'23.上	중기부
②	해외 전문가 등을 통한 IR 멘토링 운영	'23.~	중기부
(5) 범부처 협업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			
①	분야별·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	'23.~	관계부처
②	스타트업 해외진출 성과DB 통합 추진	'23.~	관계부처
③	벤처·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강화 및 제도 개선	'23.~	관계부처
2.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			
(1) K-Startup 행사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 확대			
①	K-스타트업 공동지원 글로벌 협업 기업 발굴	'22.9~	중기부
②	미국 VC와 공동펀드 조성 추진	'22.9~	중기부
③	컴업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민간주도로 운영	~'27.	중기부
(2) 재외공관 활용 K-Startup 해외 네트워크 구축			
①	K-Startup 네트워킹 지원 공관 선정	'23.上	중기부·외교부
②	재외공관 활용 벤처·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	'23.~	중기부·외교부
(3) 민간 해외거점 활용, 'K-스타트업 센터' 확충			
①	민간 해외거점 활용 KSC 신규 설치	'23.	중기부
(4) 유럽권 벤처·스타트업 해외투자 거점 설치			
①	유럽권 코리아 창업벤처 투자센터 신규 설치	'23.上	중기부

3. 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

(1) 외국의 혁신창업 인재 유치 및 성장 촉진

①	기술창업비자(D-8-4) 연장 심사 기준 완화	'23.~	중기부 법무부
②	전문직 특정활동비자(E-7-1) 부처 추천제도 활성화	'22.下	중기부 법무부
③	외국인 창업자 DB와 창업사업관리시스템 연계	'23.~	중기부 법무부
④	'K-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' 후속지원 강화	'23.~	중기부
⑤	'K-스카우터' 시범 운영	'23.~	중기부
⑥	외국인 기업을 '글로벌 혁신특구'로 유치	'23.~	관계부처

(2) 우수 유학생의 K-Startup 창업 유인

①	'도전! K-스타트업' 학생리그 내 유학생 트랙 신설	'23.~	중기부
②	지역거점대학과 'OASIS 프로그램' 연계·지원	'23.~	중기부 법무부

(3) 실리콘밸리 수준의 벤처투자 제도 개선

①	실리콘 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	'23	중기부
②	'조건부 지분전환 계약' 도입	'22.下	중기부
③	실리콘 밸리식 '투자조건부 용자제도' 국내 도입	'22.下	중기부

(4) 글로벌 펀드 활용 해외자본 국내 유치

①	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	'22.下	중기부
②	해외자본 직접 유치를 위한 국내 VC의 해외 IR 추진	'23.~	중기부

4. K-Startup 대표 브랜드 확립·확산

(1) 대한민국 K-Startup 대표 브랜드 확립

①	대한민국 벤처·스타트업 대표 브랜드 선정	'22.8	중기부
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

(2) 한-미 스타트업 행사에서 브랜드 로고 발표 및 확산

①	미국 K-스타트업 행사 계기 대표브랜드 발표·확립	'22.9	중기부
②	컴업에서 대표 브랜드 홍보관 운영	'22.11	중기부
③	해외 스타트업 이벤트에 대표브랜드 적용 및 홍보	'22.10~	중기부
④	외신 언론 등 협업을 통한 대표브랜드 홍보	'22.9~	중기부